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6. 16.(화)

## 의료제품 원료 확보부터 유통까지 안정세 유지

- 보건복지부, 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개최 -
- 희귀질환자 비대면 의료제품 구매 지원 11개 질환, 58종 제품으로 확대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6월 16일(화)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(서울 중구)에서 「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」를 개최하여,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 점검 및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생산 원료확보, 의료기관 보유 물량\* 조사, 유통망 안정화\*\*를 통해,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 중으로 평가하였다.

\* 병원 대상 전년 대비 재고 조사(심평원) : 1차(84~116%) → 2차(89~105%) → 3차(98~115%) → 4차(100~126%) → 5차(95~114%)

\*\* 주사기, 부항컵을 판매하는 온라인 물의 구매 대상 및 횟수 등 제한 조건 완화 또는 해제

또한,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이유로 위기 감지·원료 공급·유통 지원 등 단계별 조치(세부 조치 사항은 별첨 2 참조)를 신속하게 시행한 점을 꼽았다.

아울러,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반의 의료제품 구매 지원 서비스 대상과 품목을 확대함\*으로써, 의료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들의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.

\* (5.4.) 5개 질환, 15종 의료제품 → (6.12.) **11개 질환, 58종 의료제품**으로 확대

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“관계 부처와 보건의약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덕분에 의료제품 수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통해 계속되는 외부 변수 속에서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약단체 회의 개요  
 2. 중동전쟁 발발 이후 단계별 수급 대응조치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중동전쟁의료용품수급대응단 총괄팀	책임자	팀 장	양승호 (044-202-2425)
		담당자	사무관	홍석록 (044-202-2426)



## 1. 개 요

- (일시) 2026. 6. 16.(화) 08:00~09:00 (60분)
  - \* 조찬 포함
- (장소)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(서울시 세종대로19길 16)
- (보건복지부 참석자) 보건의료정책실장, 중동대응TF 총괄팀장
- (보건의약단체 참석자) 총 12명
  - 대한의사협회부회장, 대한병원협회사무총장,  
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, 대한한 의사협회부회장, 대한약사회부회장,  
한국제약바이오협회전무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상무,  
한국의약품유통협회부회장,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전무,  
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전무,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,  
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
- (논의사항) 중동전쟁 영향 보건의료 현장 의견 수렴

## 2. 진행 일정

시간 (60')		내 용	비 고
08:00~08:10	10'	○ 회의내용 보고	보건복지부
08:10~09:00	50'	○ 관계기관 의견 청취	참석자

